

보도 일시	2022. 5. 4.(수) 석간 2022. 5. 4.(수) 06:00	배포 일시	2022. 5. 3.(화) 15:00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민석 (044-200-5750)
		담당자	사무관 김수연 (044-200-5757)

유휴 항만을 해양신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 시킨다

-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22-2026)'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4일(수)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을 제정한 이래 부산항과 광양항에 있는 일부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해양신산업과 관련된 기관과 기업을 모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항의 경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시 행사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유휴 항만의 사용을 유보하고 있고,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경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관과 기업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해양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유휴항만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클러스터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 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미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해 지역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부산항의 경우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대비해 사용을 유보하고 있지만, 박람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식산업센터, 마리나 비즈센터,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센터 등 이미 유치한 3개 시설을 우선 조성한다. 광양항에 대해서는 새로 개발된 해양수산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실증단지로 육성해 해운과 항만물류 기술개발(R&D) 중심지로 도약시킨다.

해양수산부 이민석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수립한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신산업 성장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해양산업클러스터 추진 현황

□ 사업 개요

- 개념: 신규 항만시설 건설에 따라 유희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해양 산업·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구역
- 근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 운영방식
 - (도입대상) 유희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m² 이상 지역으로서, 해양 산업 집적·융복합 효과가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 * 안벽(부두 벽), 아적장, 컨테이너 장치장·조작장, 항만시설용 부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지원수단) 클러스터 내 핵심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세제 지원, 연구개발 지원,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가능

□ 추진 현황

- 「제1차 기본계획(17)」 및 부산항·광양항에 대한 「개발계획(17)」을 토대로 부산항·광양항 2개소를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조성 추진
- 광양항 클러스터 개장('20.12) 및 2개 기관 유치 완료, 부산항의 경우 엑스포 유치 시 부지 활용을 위해 현재 운영을 유보

< 제1기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운영 현황 >

	부산항	광양항
대상구역 (면적)	우암부두(178,613.9m ²)	중마일반부두(78,470m ²), 해양산업클러스터부두(209,414m ²)
총공사비	240억원 (국비 60, 지방비 60, PA 120)	138억원 (국비 32, 지방비 30, PA 76)
핵심산업	해양레저선박, 첨단부분품 제조	해운항만물류 R&D 테스트베드
입주(예정) 기관	① 마리나비즈센터 R&D센터 (해수부, 총 480억원) ② 지식산업센터 (중기부, 총 274억원) ③ 친환경 수소선박 R&D 플랫폼 (산자부, 총 420억원)	① 스마트자동차 항만 상용화 기술개발 (해수부, 총 396억원) ②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 시스템 개발사업 (해수부, 총 188억원)
개발사업자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22년 계획	해양산업클러스터 준공('22.6) * 기반시설 공사 既완료('21.12), 관계기관 협의 중	입주기업 공모 실시('22년~)

1 「제2차 기본계획」 추진 개요

□ 수립 개요

- (목적)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

* 근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6조제1항

- (내용)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해양산업 등의 집적·융복합, 대상구역, 차별화된 발전전략,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추진 경과

- 「제2차 기본계획」 연구용역('21.3~11), 유희항만 실태조사('21.6, '22.1)
- 관계부처·지자체 협의('22.4), 해양수산발전위 심의·의결('22.4)

< 「제1차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2017~2021)」 추진 경과 >

- ◆ (주요 내용) 부산항 북항 우암부두 및 배후 ODCY를 '지정가능구역'으로 지정, 핵심산업으로 해양레저선박 및 첨단부분품 제조업 선정
- 광양항 중마일반부두, 컨테이너부두 1단계(3.4번선석)를 '지정가능구역'으로 지정, 핵심산업으로 해운항만물류 R&D산업 선정

< 부산항 지정가능구역 >



< 광양항 지정가능구역 >



※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암부두 ODCY와 광양항 '컨' 1단계 3번선석은 대상구역에서 제외

- ◆ (성과 및 한계) 국내 최초로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개장('20.12),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개발절차 정비 등 제도개선
- 그러나, 광양항 클러스터 기관·기업 유치실적(2건)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며, 부산항의 경우 엑스포 유치 시 부지 활용 위해 운영 유보 중

2

비	전	국제적 수준의 클러스터로, 세계 최고의 해양대국으로	
목		표	
		해양산업 집적·고도화 기반으로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 * 유치 기관·기업 수: (광양항) 2개('22) → 5개('27) / (부산항) 3개('22) → 6개 (부산항은 '30년 엑스포 개최 확정 시, 엑스포 개최 이후 유치 추진)	
[전략1]		클러스터 지원·육성	
①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정요건 완화 - 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 운영체계 마련		② 입주 유인 확대 - 인센티브 확대 - 핵심산업 육성 - 집적·융복합 촉진	
[전략2]		지역별 맞춤형 육성	
① 부산항 클러스터 육성 - 부산 엑스포 고려 - 본격운영 대비 수요조사 - 지역 내 인프라 활용		② 광양항 클러스터 육성 - R&D 적극 유치 - 기업지원 강화 - 대상구역·핵심산업 조정	
[전략3]		신규 클러스터 지정	
① 신규 '가능구역' 지정 - 인천 남항 SICT 및 E1CT - 군산항 1부두 ※ 개발여부 및 시기는 유희화 여부, 관련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② '가능 핵심산업(군)' 검토 지자체 주력산업, 클러스터 취지 등 고려하여 지역별 '가능 핵심산업(군)' 검토	

3

①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원 및 육성 전략

①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정요건 완화)** 유휴항만시설 활용도 제고 및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클러스터 지정기준(10만㎡ 이상)* 완화** 추진
 - * 현행법상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부지'에 지정 가능, 예외조항 역시 유휴항만시설이 10만㎡ 이상이어야 함을 명시 ⇒ 10만㎡ 미만 부지 클러스터로 지정 불가
- **(지원센터 지정)** 클러스터 **운영** 및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지원센터***' 지정
 - * **주요기능(안):** ①클러스터 육성 및 관리(운영방안 수립, 기관·기업 유치, 운영위 지원), ②핵심 산업 지원(연구개발·사업화 촉진, 산·학·연 프로젝트 기획), ③입주기관 지원(전문인력 양성 등)
- **(운영체제 마련)** 지원센터, 정부·지자체, 입주기업,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클러스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클러스터간 협의체도 운영

②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입주유인 확대

- (인센티브 확대) 지방세 혜택, 고용보조금,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추가 인센티브(국세감면 등) 확대 추진
- (핵심산업 육성) 창업 엑셀러레이터, 해양·수산 펀드, 우수기술 사업화 등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정책과 연계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
- (집적·융복합 촉진) 클러스터 내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현안이슈 및 지역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선정·수행 지원

② 해양산업 클러스터별 맞춤형 육성 전략

① 부산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

- (엑스포 고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동향과 연계하여, 유치 확정 기관*은 시설개장 정상 추진, 유휴부지는 지역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 지식산업센터,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센터(24년까지 시설 건립 예정)
- ** 현재 클러스터 내 유휴부지를 부산-제주 카페리부두, '컨' 임시장치장 등으로 활용 중
- (본격운영 대비) 클러스터 본격 운영에 대비하여 업종별 유치 적합 기업 현황을 모색하고,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
- (지역 내 인프라) 부산 내 해양 관련 기관(해양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및 업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모색

②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

- (R&D사업 유치) 잠재 수요기업에 대한 집중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해양수산 R&D 사업 입주 독려, 대국민 홍보 추진 등
- (입주기업 지원 강화) 유치 확대를 위한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입주기관·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책 모색
- (핵심산업·구역 조정) 유치 활성화를 위한 핵심산업 확대* 및 항만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일부 구역의 일반 부두로의 한시 전환** 검토

* 현재 핵심산업이 '해운항만물류 R&D 테스트베드'로 명시되어 있어 잠재 유치가능 기관기업 한정적

** 입주 신청 실적이 전무한 중마부두에 대해, 하포부두 초과수요 등을 고려하여 한시 전환 검토

③ 신규 해양산업 클러스터 대상구역 및 핵심산업

① 신규 '가능구역' 지정

- (추진방향) 유헴향만실태조사 결과, 물리적 여건, 법정 요건, 관련 계획 고려 시 클러스터로 즉시 개발 가능한 유헴향만시설 부재
 ➡ 현재 운영 중이나 유헴화될 수 있어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을 '가능 구역'으로 선정, 추진여부·시점은 관련 동향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선정결과) 제2기 해양산업 클러스터 '가능구역'으로 ①인천 남항 SICT 및 E1CT, ②군산항 1부두를 지정

	인천항 (남항 SICT, E1CT)	군산항 (1부두)
대상구역		
검토결과	◆ 現 유헴지인 SICT 및 유헴화 가능성 있는 E1CT에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 有 - 단 유헴화된 국유지(7.9만m)만으로는 면적기준 충족 불가 E1CT 유헴화여부시점 검토 필요	◆ 현재 1부두는 잡화부두로 이용 중, 향후 소형 역무선부두로 전환 시 인근부지 유헴화 전망 - 단, 소형 역무선부두로의 전환시점 불분명

② '가능 핵심산업(군)' 검토

※ 추진여부 및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본 계획에서는 지자체 주력사업 등을 고려해 '가능 핵심산업(군)'을 검토하고, 추후 추가분석을 통해 핵심산업 최종 선정

- (인천항) ①해양바이오, ②항만물류, ③해양관광 등 가능
- (군산항) ①조선해양, ②항만물류, ③해양에너지, ④해양관광 등 가능

4 향후 계획

- 지정요건 완화 추진, 운영위 구성, 추가 인센티브 확대 추진('22)
- 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24), 제2기 클러스터 지정·개발(여건 조성 시)